

학 번 : 201527137

이 름 : 정대현

제출일 : 2020.09.10

1. 읽기 실습 기사(article)와 정보전달 제시된 기사에 대한 개인적인 분석과 결과 작성

- (1) 제목의 언더도그 용어 사용과 전체 문맥의 흐름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내용을 보지 않고 제목만 보고 유추를 해본다면 제일 먼저 어느 팀이 약팀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최근 승승장구하며 포스트시즌을 노린다는 식의 전개가 될 것인데, 이 기사문의 전개는 너무 산만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한눈에 안 보입니다. 특히 독자가 야구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배경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 더욱 난해하며 설령 약팀이 지금 강팀을 대상으로 승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보아도 여전히 글이 안 읽힙니다. 계속해서 이긴다고 하고 다른 팀과 수치만 나열, 가시성이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비교의 연속이라 뭐가 어느 부분에서 언더독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기사는 문맥의 배치와 숫자 정보 전달의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뒤에 기사를 보면 제목에서는 ~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라고 해놓고, 정작 마지막에서는 약팀이 포스트시즌에 진출했을 때의 불리한점등을 설명하는 것이 제목과 반대된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을 넣고 싶었다면 제목에서 '~이어질 수 있을까?'등으로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 (2) 제목이라 하면 보다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는 포괄적인 것으로 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다만 해당 기사는 유류공급 30% 차단 그리고 섬유수출을 전면 금지했다는 내용을 뒤로 하고 본문에서는 원유수출 제한, 정유제품 수출 제한, 콘덴세이트, 액화천연가스 수출 전면 금지,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섬유수출, 해외 노동자 고용제한, 그리고 여러가지 수출입 과정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제재 등 여러가지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으로 몇 가지 제재 대상이 빠진 것을 언급 하였습니다. 저라면 제목을 '북한의 외화벌이 타격 그러나 여지는 남겨'로 지을 거 같습니다.

2. "읽기 실습 3" : 맞춤법 및 문장의 적절성 측면에서의 인터넷 기사 분석 및 검토(기사 원문 및 출처 제시)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277&aid=0004751714&date=20200908&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5](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277&aid=0004751714&date=20200908&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5)

"카카오 들어오라해"...과방위, '윤영찬 문자' 논란에 파행(종합)

해당 기사에는 기사를 볼 때 기자들이 자주 실수하거나 무엇을 잘못된지 모르는 오류 사례가 있는데, 바로 객관적 사실의 전달입니다. 대부분의 기사가 있었던 일에 대해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면 자신의 의견인 주관적 사실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위 기사에서도 인물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고 반박했다.' '~고 해명했다.' '~고 촉구했다' 등의 인용구 맺음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데 이는 해당 의원에게 가서 물어보고 쓰는 게 아닌 이상 기자의 감정평가가 개입된 주관적 술어 방식입니다. ~했다, ~말했다, ~밝혔다 이런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윤 의원은 해당 메시지가 포털 탄압 논란으로 **확산되자**' '확산되자'의 문법이 틀렸습니다. 확산이라는 명사에 하다가 붙어 '확산하다'라는 자동사가 되는 것에는 '되다'를 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영어번역 투로 많은 사람들이 틀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자동사는 ~하다 확산하다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사람이 **임의적으로** 관여하는 일은 전혀 없다.' 한자어 접미사인 -적 -화 -성 등은 오랫동안 널리 써왔기에 친숙하

지만, 한자어 접미사를 뺄 때 단어나 문장이 어색하지 않다면 줄여 쓰는 게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임의적으로' 대신 '임의로' 간단하게 써야 합니다.

3. "읽기 실습 4" : 인터넷 기사에서 제시된 수치 혹은 통계 자료의 근거 및 오류 등 분석과 검토 (기사 원문 및 출처 제시)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009087357i> 국내 교사 연봉 OECD 평균보다 1188만원 많은데...

기사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는 OECD 교육지표 2020을 발표했는데, 학생들의 사교육의존도는 늘어나며 기초학력은 부실해지는 가운데, 교사연봉이 OECD 평균보다 1000만원이 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특정한 주장을 위해서 통계를 무리하게 가져다 쓴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책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단순히 기사의 인상은 대한민국 교사는 비효율적인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고학력교사가 많으며, 공무원 체계 특성상 호봉이 올라갈수록 수입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며 이는 다른 나라의 교사 임금 산출 방식과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무시하고 단순히 한국교사의 평균연봉이 OECD평균보다 천만원 높다고 해버리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위치에서 보았을 때 고임금 국가이기에 오히려 OECD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직종을 찾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교사 임금을 산출할 때는 구매력평가 지수를 기반으로 한 PPP를 이용하였으며 PPP의 경우 GDP의 문제인 물가 수준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만 반대로 재화의 특성이나 질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장의 의한 분배(평균근로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선진국과 비슷한 물건을 팔면서 낮은 임금으로 제품가격을 후려치는 식의 전략을 택한 국가일 수록 강력한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결국 PPP만으로는 삶의 질이나 빈부격차를 설명하지 못하게 됩니다. 싱가포르 1인당 PPP가 무려 10만 불이 넘고 대만도 5만 불이 넘지만 이들의 평균임금을 따져보면 일본은 커녕 한국에도 못 미치거나 비슷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https://www.imf.org/external/pubs/ft/weo/2019/01/weodata/index.aspx>

IMF기준 2018년 기준 대한민국의 1인당 PPP는 41,351\$ 29위를 기록했습니다.

평균임금 산출과정이 완전하지 않으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교사의 연봉이 천만원이 높다라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완벽한 산출방법과 계산방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른 수치 비교없이 1인당 PPP 비교만 가져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읽는 사람에 따라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습니다.

4. "읽기 실습 5" : 일간지 사설(표현과 논리의 전개가 적절한 사설)를 읽고 앞서의 읽기 실습 1~4와의 차이점 분석(기사 원문 및 출처 제시)

<https://news.joins.com/article/23867617> 공짜 점심 없듯 공짜 재정 없다

경제학에서 유명한 말인 '공짜 점심은 없다' 라는 말을 인용해서 정부의 재정 지출에 있어서도 공짜는 없다는 함축적으로 나타내어 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기사문(실습2)과 달리 제목은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있으며 첫번째 기사문(실습1)은 문맥이 난해하였지만 본 사설의 내용을 축약하자면 세계적으로 빚 중독이 퍼지고 있으며 이를 한국의 사례에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막대한 재정지출에 대한 우려로 글을 끝마치고 있으며 문맥간 전개도 자연스럽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보통 돈의 규모가 수천억~수조 단위를 넘어가버리게 되면 가늠할 수 없기에 공감을 하기 어려운데, 본 사설에서는 경부고속도로 45개 규모라는 비유로 돈에 대한 감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니다. 실습 3의 맞춤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찾지 못하였으며 실습 4와 달리 통계인용에 대해서도 달리 잘못된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읽는데 부담없이 편했기에 해당 사설을 선택했습니다.

##### 5. 금번 학기에 읽을 책 1권에 대한 정보와 선정 사유

책 제목: 대통령의 글쓰기 / 저자: 강원국

평소에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매달 2~3권씩 책을 읽습니다. 이번에 읽을 책으로 두 권 빌렸는데 마침 읽기 시작한 두번째 책입니다. 정치색나 인물을 떠나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 횟수가 각각 20번 45번으로 문민정부 이래로 압도적인 횟수를 자랑하는데, 이는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숫자를 아득히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자회견의 바탕에는 '완성된 원고'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것인지 책 제목처럼 대통령의 글쓰기가 궁금해서 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